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74
AUG 4 2023

발간년월 2023년 8월 4일(통권 제274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 종 덕 **총괄·감수** 김 엄 지 **담당** 유 지 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6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극동

- 러 페스코-철도청, 블라디보스톡 상업항 화물 처리량 40% 증대 계획

중·서부

-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물류 협력 확대
- 러 정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조선소 개발 및 투자 추진
- 조지아, 물동량 확대를 위해 카자흐-우즈베크와 협력 확대

주요 통계

- 2023년 1~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0년~2023년 5월 러시아 역내 화물 운송량
- 2020년~2023년 5월 러시아 역내 운송수단별 화물 운송량



주요 동향



러 페스코-철도청, 블라디보스톡 상업항 화물 처리량 40% 증대 계획

그림. 블라디보스톡 상업항 및 항만 연결 철도 전경



자료: <https://www.fesco.ru/ru/press-center/news/fesco-i-rzhd-uvelichat-propusknuyu-sposobnost-vmtp-dlya-konteynernykh-poezdov-na-40/>

■ 블라디보스톡 상업항~블라보스톡 기차역 연계 확대 사업 추진 예정

- 러시아 철도청(Russia Railways 및 RZD)은 러시아 국영선사 페스코(FESCO)사(社)와 함께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톡 상업항과 블라디보스톡 철도역을 연결하는 추가 철로 건설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시작했음
- 해당 철로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항만과 연계된 컨테이너 열차 수는 약 40%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 사업을 통해 상업항에서 블라디보스톡 기차역까지 향하는 일종의 ‘화물 출구로’가 추가로 생성되게 되며, 또한 블라디보스톡 역의 열차 차량기지가 재건될 예정임

- 재건사업이 완료된 후, 블라디보스톡 상업항은 일일 최대 7대 컨테이너 열차를 처리하던 것에서 10대 컨테이너 열차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화물 열차를 포함해 처리 가능한 화물 열차 수는 현재 기준 10대에서 일일 12~14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장기적으로는 일일 16대 열차가 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항만 화물 처리 용량을 확대할 계획임
- 보리스 이바노프(Boris Ivanov) 페스코 생산 개발 부장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톡 상업항은 최근 3년 반동안 러시아 내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으로서는 1위를 차지한 항만으로, 해상운송을 통해 도착하는 화물 중 70%는 철도를 통해 타 지역으로 보내지는바, 철도청과의 긴한 협력을 통해서만이 항만 발전이 가능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https://www.fesco.ru/ru/press-center/news/fesco-i-rzhd-uelichat-propusknyuyu-sposobnost-vmtp-dlya-konteynerykh-poezdov-na-40/\(2023.8.4. 검색\)](https://www.fesco.ru/ru/press-center/news/fesco-i-rzhd-uelichat-propusknyuyu-sposobnost-vmtp-dlya-konteynerykh-poezdov-na-40/(2023.8.4. 검색))
- [https://www.eastrussia.ru/news/rzhd-i-fesco-uelichat-propusknyuyu-sposobnost-vmtp/\(2023.8.4. 검색\)](https://www.eastrussia.ru/news/rzhd-i-fesco-uelichat-propusknyuyu-sposobnost-vmtp/(2023.8.4. 검색))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물류 협력 확대

그림. 제2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연설 중인 푸틴 대통령



자료: <https://asia24.media/news24/putin-transportnyy-koridor-sever-yug-pozvolit-naladit-udobnye-postavki-tovarov-v-afriku/?ysclid=lkv0fgccze252527305>

■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및 경제·인도주의 포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

- 지난 7월 27(목)~28(금)일 동안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2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및 러시아-아프리카 경제 및 인도주의 포럼’이 개최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48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였음
 - 동 정상회담 및 포럼은 러시아와 아프리카 대륙 국가간 협력의 형태 및 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역간 장기적 협력관계 발전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9년에 러시아 소치에서 첫 정상회담 겸 포럼이 진행되었으나 2023년 포럼의 경우, ‘경제 및 인도주의 포럼’으로 포럼명을 변경하였음. 이는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양 지역 협력에 있어 최우선으로 논의되어야 할 ‘인도주의적 영역’에 대한 협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임
- 해당 정상회담을 통해 △제2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선언문, △우주 공간에서의 군비 경쟁 방지에 대한 선언문, △국제 정보 보안 보장을 위한 협력에 대한 선언문, △테러와의 전쟁 관련 협력 강화에 대한 선언문, △러시아-아프리카 2023-2026 파트너십 포럼 실행 계획 등 5개 핵심 문서가 결과로서 채택되었고, △새로운 세계의 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 △인도주의 및 사회적 영역 : 새로운 차원의 삶의 질로 함께 향하기, △통합 안보 및 주권 발전

이라는 대주제 관련 총 59개의 세션에 외국 기업가 1천여명, 러시아 기업 대표 2천여명, 해외 공식 대표단 1,100여명 및 러시아 공식 대표단 750여명 등이 참석하여 약 161건의 기업 혹은 기관간 협약이 체결되었음

- 계약체결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국제협력 및 지역간 협력 분야에서 56건, △교육 및 학술 분야에서 51건, △과학기술 협력에서 10건, △수출 및 대외경제활동 분야에서 10여 건의 협약이 체결됨

■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아프리카 대륙으로 물류망 확장 계획 논의

- 동 정상회담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은 러시아와 아프리카 간 상품 운송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러시아는 아프리카 항구 중 한 곳에 운송 및 물류 센터의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INSTC 개발에 아프리카의 참여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함
 -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INSTC)은 러시아, 이란, 인도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수로, 철도 및 도로 등을 연결하는 복합운송망 구축사업임
- 아울러 포럼 기간 중 7월 27일 개최된 ‘러시아-아프리카 새로운 물류 경로’ 제하 세션에서 공유된 정보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와 다른 지역 국가 간 모든 무역의 95% 이상이 해운으로 이루어지며, 아프리카의 해안선은 약 31,000km, 철도 길이는 84,000km를 초과하고, 도로 인프라의 68%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음. 또한 대륙에는 무려 90개 이상의 주요 항만이 있음
- 그러나 상기와 같이 언급된 △해상운송, △해안선, △철도 인프라, △도로 인프라, △항만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적으로 연결된 물류망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운송망을 고려하지 않고 운송 인프라가 개발된 탓이라고 세션 참가자들은 설명함
-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는 총 건설 비용 약 36억 달러(약 4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약 12,000km의 새로운 철도 노선 마련을 통한 국가 수도 통합 대륙횡단 고속철도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존재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INSTC에 참여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세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특히 회랑 내에서 이란과 탄자니아 항구 간의 해상 운송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탄자니아 항만청 이사회 위원인 루푸니오 후세인(Lufunyo Hussein)은 탄자니아의 터미널은 일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콩고(Republic of the Congo) 및 부룬디(Burundi)와 협력하여, 우간다(Uganda), 수단(Sudan), 모잠비크(Mozambique)의 다양한 지역의 운송 인프라에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또한 이 지역들은 복합 운송 측면에 있어 높

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그림. 제2회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연설 중인 푸틴 대통령



자료: <https://www.fesco.ru/ru/press-center/news/fesco-i-assotsiatsiya-ekonomicheskogo-sotrudnichestva-so-stranami-afriki-zaymutsya-razvitiem-logisti/>

■ 러시아 선사 FESCO(페스코)-러 AECAS, 러시아-아프리카간 물류 서비스 개발 결정

- 이번 러-아프리카 정상회담 및 포럼을 계기로 러시아 물류기업 페스코(FESCO)사(社)와 러시아 아프리카경제협력협회(Associ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African States, 이하 AECAS)는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간의 물류 서비스 개발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함
 - 금번 제2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및 포럼을 준비를 진행하는 등 두 지역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인 AECAS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54개국 개별 대표가 존재하며, 그 중 45개국 대표는 정수 수반급임. 현재까지 AECAS를 통해 러-아프리카는 8천억 루블 규모의 50개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함
- 안드레이 세베릴로프(Andrey Severilov) 페스코 이사장과 알렉산더 살타노프(Alexander Saltanov) AECAS 회장은 동 의향서에 서명하여 러시아~아프리카 국가간 정기 복합 운송 서비스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특히, 페스코와 AECAS는 아프리카 국가 중 러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을 선별하여

양국 간 화물 기반 정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양 지역 간 화물 운송 진행에 관계된 정부 부처 및 이행 기관에 러~아프리카간 운송 이니셔티브를 홍보하고 관련 작업을 가속화하는데 동의함

■ 러시아 페스코, 러~남아공 및 러~이집트 항로 개설 예정

- 또한, 금번 정상회의 겸 포럼에 참석한 안드레이 세베릴로프 페스코 이사장은, 페스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약칭 남아공)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러-남아공간 직항로를 개설하여 7월 27일 포트 엘리자베스(Port Elizabeth)시에서 해당 직항로를 통해 도착한 첫 번째 선박을 맞이했다고 언급하며, 2023년 연말까지 러~남아공 간 정기 항로를 개설할 것이라고 발언함
- 세베릴로프 이사장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이 생산한 태양전지 부품 1,000TEU를 실은 페스코의 첫 번째 선박이 금번 남아공의 포트 엘리자베스시에 도착했음
 - 해당 화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서 주문한 물품으로, 화물을 실은 선박이 이용한 항로는 페스코사의 선박들의 주요 항로라 할 수 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상하이 항로와 별개로 운항될 예정이며, 2023년 연말까지 연간 1회 운항되는 정기 항로로 개발할 계획임
- 아울러, 현재 페스코는 이집트 다미에타(Damietta) 항만~러시아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항만 신규 노선에 대한 협약 문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노선을 통해 냉장 화물 위주의 연간 약 30,000TEU 규모 화물이 오갈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아프리카는 러시아 기업에 있어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대륙이라고 강조함
- 뿐만 아니라 세베릴로프 이사장에 따르면, 이집트에 페스코 지사를 설립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어 페스코는 향후 북아프리카 및 중앙아프리카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허브로서 이집트 지사를 활용할 계획임
- 특히, 페스코는 모로코(Morocco), 알제리(Algeria), 튀니지(Tunisia)와 같은 마그레브(Maghreb) 국가들과도 지사 개설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해운 노선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임
- 포럼에 참석한 드미트리 파트루셰프(Dmitry Patrushev) 러시아 농림부 장관의 정보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아프리카향(向) 러시아 농산물 수출 규모는 33억 달러를 기록하여 작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한바, 러~아프리카간 해상 운송 노선의 다양화는 러시아 대(對)아프리카 수출량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러 로사톰, 아프리카 국가들 러시아 해상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에 관심 집중^{c)}

- 러시아와 아프리카 양국은 금번 포럼을 통해 물류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논의를 진행함
-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Rosatom)의 알렉세이 리하초프(Aleksey Likhachyov) 회장 또한 이번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 및 포럼에 참석하여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러시아의 해상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음. 특히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동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매우 큰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리하초프 대표는 해상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건설 외에도 아예 원자력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일명 ‘원자력 에너지 함대’ 구축을 제안했음. 만약 해당 함대가 꾸려진다면 발전소를 거치지 않고 선박을 통해 바로 전력 소비자에게까지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이 최소화된다고 설명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예고로프 아르쎘 러시아 전문위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egorov201548131@mail.ru)

장은진 실습생,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weekly_kmi@kmi.re.kr)

참고자료

- a) <https://www.rzd-partner.ru/logistics/news/mtk-sever-yug-planiruetsya-zavesti-v-afriku/>(2023.7.31. 검색)
- b) <https://asia24.media/news24/putin-transportnyy-koridor-sever-yug-pozvolit-naladit-udobnye-postavki-tovarov-v-afriku/?ysclid=lkv0fgccze252527305>(2023.7.31. 검색)
- c) <https://en.portnews.ru/news/350990/> (2023.08.01. 검색)
- d) <https://morvesti.ru/news/1679/103973/>(2023.08.02. 검색)
- e) <https://morvesti.ru/news/1679/103989/>(2023.08.02. 검색)
- f) <https://morvesti.ru/news/1679/103991/>(2023.08.02. 검색)

러 정부,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조선소 개발 및 투자 추진

그림. 세브모르자보드 조선소의 모습



자료: https://vpk.name/en/547274_sevastopol-sevmorzavod-will-be-re-equipped-to-ensure-the-repair-of-ships-of-the-russian-navy.html

■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세브모르자보드 조선소, 2024년 가을 대규모 선박 건조 예정

- 2024년 가을 크림반도 남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세브모르자보드(Sevastopol Shipyard 및 Sevmorzhavod) 조선소’는 최근 수요가 많은 곡물 운반선을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짐
- 해당 세브모르자보드 조선소의 선박 건조 계획은 러시아 조선통합공사(United Shiping Corporation, 이하 USC)에 세브모르자보드가 합병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선박 건조 작업임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0월 21일자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 조선통합공사(United Shiping Corporation, 이하 USC)에 합병하는 문서에 서명한 이후, 세브모르자보드는 USC에 통합되었음
 - USC에 합병된 이후 세브모르자보드의 지분 정리는 2023년 여름경 마쳐 USC는 세브모르자보드의 유일한 주주가 된 상황임
- USC의 총책임자인 알렉세이 라흐마노프(Aleksey Rakhmanov)와 세바스토폴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예프(Mikhail Razvozayev)는 세바스토폴의 해양플랜트 생산시설을 방문해서 조선소의 현대화에 대해 논의했음은 물론, 상업용 선박 및 어업 선박 건조와 러시아 흑해 함대를 위한 선박 수리가 세브모르자보드 조선소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세브모르자보드 조선소, 러 남부지역·크림반도·흑해 연안 선박을 위한 선박 수리·건조 중심지로 개발 예정

-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주지하는 가까운 시일 내 세바스토폴에서 선박 건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라흐마노프 USC 총책은 세브모르자보드 조선소가 향후 4만~6만 톤급 벌크선을 수리·건조할 예정임을 설명함
- 뿐만 아니라, 세브모르자보드 조선소는 러시아 내륙수로 및 해상운송 모두 가능한 벌크선을 건조할 수 있음
- 또한, 크림반도에 위치한 도시 인케르만(Inkerman)에 설치된 시설에서 선박 건조를 위한 금속 구조물이 제작될 것이며, 선박 건조 및 수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설비인 드라이독(drydock)을 통해 선박 구조물 조립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세브모르자보드와 USC의 합병은 우크라이나 영토, 아조프해, 흑해 등과 접한 남부 연방관구에 있는 선박 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흑해 해군의 작전 준비를 보다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러시아 남부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의 러시아의 영토로 병합된 크림반도, 크림반도와 접한 흑해, 아조프해 등에서 항해가 가능하거나 해당 지역을 오가는 선박 및 함대의 건조, 유지보수, 수리를 담당하는 조선소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이우진 실습생,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weekly_kmi@kmi.re.kr)

참고자료

- a) <https://en.portnews.ru/news/350686/>(2023. 8. 2. 검색)
- b) <https://en.portnews.ru/news/303603/>(2023. 8. 2. 검색)

조지아, 물동량 확대를 위해 카자흐-우즈베크와 협력 확대

그림. 우즈베키스탄 측의 트랜스카스피안 국제 운송루트 확대 제안 방안 (우즈베크 세르겔라-불가리아 부르가스)

Сергели (Ўзбекистон) - Бургас (Болгария) йўналишидаги контейнер поезди
Container train in the direction of Sergeli (Uzbekistan) - Burgas (Bulgaria)



자료: <https://www.portseurope.com/reference-trans-caspian-international-transport-route-also-known-as-the-middle-corridor/>

■ 8월 1일 조지아-카자흐스탄 총리급 회담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었음^{a)}

- 이라클리 가리바쉬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알리한 스마일로프(Alikhan Smailov) 카자흐스탄 총리와 알마티(Almaty)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파트너십과 트랜스카스피안 물류 회랑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음
- 양국 총리의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가리바쉬빌리 총리는 조지아-카자흐 양국이 중앙 회랑(트랜스카스피안 회랑의 별칭)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양국이 물류망 발전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아울러 가리바쉬빌리 총리는 방중 과정에서, 중국 정부 측에도 회랑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양국간 로드맵 내용을 설명했다고 언급했음
- 스마일로프 총리 또한 “조지아는 카자흐스탄에게 남코카서스에서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라고 평했으며, 올해 6월 조지아 방문을 통해 협력 스펙트럼 논의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카자흐 총리의 조지아 방문에서 양측은 연간 양국 무역 규모 증가에 합의한 바 있음

- 한편, 지난 6개월 동안 양국 무역 규모는 30% 증가했으며, 중앙 회랑을 통한 환적물동량은 77%가 증가한 130만 톤을 기록한 바 있음. 스마일로프 총리는 장기적인 상승세 유지를 위해 양국의 정부간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음

■ 한편, 우즈베크 총리 조지아 공식 방문하여 철도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b)}

- 가리바쉬빌리 총리의 카자흐 방문 전에는 압둘라 오리포프(Abdulla Oripov) 우즈베키스탄 총리가 지난 7월 17일 수도 트빌리시(Tbilisi)를 방문한 바 있음. 양국 총리는 조지아의 잠재력과 중앙 회랑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양국 총리는 상호협력 증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 하에서 회담을 진행했으며, 개혁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와 무역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 아울러 양측은 2023-24년 양국 협력 발전 방안 관련 문건에 서명하였으며, 총리 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양국 무역상공회의소는 이보다 더 확장된 형태의 비즈니스 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하였음
- 가리바쉬빌리 총리는 2021-22년 양국 무역규모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조지아는 우즈베크를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바, 우즈베크 측의 투자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양국 교역규모는 약 1억 6,000만 달러로, 이 중 1억 1,110만 달러가 조지아의 수출 규모임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sputnik-georgia.ru/20230801/iz-kitaya-v-kazakhstan---premer-gruzii-obsudil-v-alma-ty-vazhnost-srednego-koridora-280718591.html>(2023.8.2. 검색)
- b) <https://sputnik-georgia.ru/20230717/premery-gruzii-i-uzbekistana-obsudili-rabotu-transport-nogo-koridora-vostok-zapad-279638721.html>(2023.8.2. 검색)



주요 통계



표. 2023년 1~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극동지역	64.9	9.4%	34	6.9%	98.9	8.5%
북극해	12.1	18.7%	29	-4.9%	41.1	1%
발트해	47.4	17.9%	62.2	-0.5%	109.6	6.7%
아조프-흑해	60.2	35.6%	66.4	11.3%	126.6	21.7%
카스피해	1.6	76.2%	1.2	2.7%	2.8	31.4%
합계	186.2	20.1%	192.8	3.8%	379	11.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라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5월 기준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48763/\(2023. 7. 7. 검색\)](https://portnews.ru/news/348763/(2023. 7. 7. 검색))

표. 2020년~2023년 5월 러시아 역내 화물 운송량

(단위: 천 톤, %)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운송량	2020년	567,509.2	580,010.5	613,588.0	579,480.8	605,641.0	637,823.0	737,245.4	759,564.1	759,496.2	706,375.0	652,307.9	646,594.1
	2021년	543,821.8	549,086.1	615,080.0	588,678.7	637,039.2	687,272.0	761,549.4	762,800.5	745,276.9	734,333.4	704,813.7	721,620.2
	전년 대비 증감률(%)	-4.2	-5.3	0.2	1.6	5.2	7.8	3.3	0.4	-1.9	4.0	8.0	11.6
	전월 대비 증감률(%)	-15.9	1.0	12.0	-4.3	8.2	7.9	10.8	0.2	-2.3	-1.5	-4	2.4
	2022년	555,636.9	550,577.3	615,672.0	579,201.3	632,077.9	678,164.9	740,885.3	753,309.5	728,492.0	723,781.2 ³⁾	700,038.7 ³⁾	701,495.2 ³⁾
	전년 대비 증감률(%)	2.2	0.3	0.1	-1.6	-0.8	-1.3	-2.7	-1.2	-2.3	-1.4	-0.7	-2.8
	전월 대비 증감률(%)	-23	-0.9	11.8	-5.9	9.1	7.3	9.2	1.7	-3.3	-0.6	-3.3	0.2
	2023년 ³⁾	591,141.3	596,014.0	643,218.5	609,720.2	633,414.9							
	전년 대비 증감률(%)	6.4	8.3	4.5	5.3	0.2							
	전월 대비 증감률(%)	-16.2	0.8	7.9	-5.2	3.9							
산업화물 운송량	2020년	310,640.7	314,549.0	332,753.5	304,039.5	306,417.9	302,260.4	329,721.0	339,367.9	337,709.2	338,718.0	329,493.3	338,860.1
	2021년	304,340.5	295,825.0	336,610.2	324,025.6	342,514.6	346,501.7	353,630.4	353,522.2	347,324.0	351,155.5	338,860.7	346,887.4
	전년 대비 증감률(%)	-2	-6	1.2	6.6	11.8	14.6	7.3	4.2	2.8	3.7	2.8	2.4
	전월 대비 증감률(%)	-10.2	-2.8	13.8	-3.7	5.7	1.2	2.1	0.0	-1.8	1.1	-3.5	2.4
	2022년	310,521.8	299,687.6	333,240.0	315,358.7	333,932.4	336,779.3	345,565.4	346,972.7	334,711.9	344,703.6 ³⁾	336,033.1 ³⁾	340,444.0 ³⁾
	전년 대비 증감률(%)	2.0	1.3	-1.0	-2.7	-2.5	-2.8	-2.3	-1.9	-3.6	-1.8	-0.8	-1.9
	전월 대비 증감률(%)	-10.5	-3.5	11.2	-5.4	5.9	0.9	2.6	0.4	-3.5	3.0	-2.5	1.3
	2023년 ³⁾	322,874.8	318,321.2	343,089.1	319,001.4	326,344.8							

	전년 대비 증감률(%)	4.0	6.2	3.0	1.2	-2.3							
	전월 대비 증감률(%)	-6.2	-1.4	7.8	-7	2.3							
파이프 라인 수송량을 제외한 상업화물 운송량	2020년	209,551.8	219,372.0	236,313.5	215,113.1	228,394.3	228,444.7	251,549.3	257,700.8	254,995.4	250,524.5	236,376.0	234,758.1
	2021년	199,321.8	199,857.6	235,731.0	232,670.2	250,470.9	257,678.8	264,845.0	264,019.9	256,877.4	255,601.8	242,134.3	240,636.6
	전년 대비 증감률(%)	-4.9	-8.9	-0.2	8.2	9.7	12.8	5.3	2.5	0.7	2.0	2.4	2.5
	전월 대비 증감률(%)	-15.1	0.3	17.9	-1.3	7.7	2.9	2.8	-0.3	-2.7	-0.5	-5.3	-0.6
	2022년	206,223.4	205,926.8	232,022.0	228,758.7	247,399.8	254,427.4	264,476.6	266,103.3	256,458.5	259,320.1 ³⁾	246,081.6 ³⁾	238,945.6 ³⁾
	전년 대비 증감률(%)	3.5	3.0	-1.6	-1.7	-1.2	-1.3	-0.1	0.8	-0.2	1.5	1.2	-0.7
	전월 대비 증감률(%)	-14.3	-0.1	12.7	-1.4	8.1	2.8	3.9	0.6	-3.6	1.1	-5.5	-2.5
	2023년 ³⁾	220,710.8	228,027.3	249,805.5	233,453.2	244,227.1							
	전년 대비 증감률(%)	7.0	10.7	7.7	2.1	-1.3							
	전월 대비 증감률(%)	-9.1	3.3	9.6	-6.5	4.6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

표. 2020년~2023년 5월 러시아 역내 운송 수단별 화물 운송량

(단위: 천 톤)

운송 수단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철도 (직재 화물 기준)		2020	100,295.7	99,493.2	107,099.1	100,912.3	100,586.3	97,163.7	103,805.9	108,131.7	105,293.4	109,920.7	104,818.2	107,106.7
		2021	101,227.4	96,752.4	109,442.8	107,848.9	110,947.6	107,092.0	108,122.2	109,128.3	106,511.6	110,406.0	108,086.0	108,528.4
		2022	104,219.9	97,206.1	106,793.9	102,497.8	104,740.0	100,154.9	102,184.0	103,793.9	100,957.7	107,173.1 ³⁾	103,718.1 ³⁾	102,916.1 ³⁾
		2023 ³⁾	99,413.9	97,521.0	109,358.0	105,806.7	106,950.3							
차량 운송 화물	합계	2020	361,786.6	381,410.2	405,244.6	383,623.0	411,586.1	450,419.6	536,922.8	552,163.2	554,253.6	492,837.8	444,036.6	430,397.2
		2021	334,004.6	353,223.3	400,100.3	384,111.9	420,149.2	473,292.1	546,076.3	545,704.4	529,347.9	512,955.7	489,896.9	501,650.3
		2022	343,416.5	355,487.9	403,791.3	384,496.0	426,031.3	477,220.4	536,793.0	546,992.1	530,399.8	514,358.0 ³⁾	494,298.1 ³⁾	492,320.9 ³⁾
		2023 ³⁾	385,139.3	404,606.7	435,673.3	411,477.9	429,024.6							
	상업 화물	2020	104,918.1	115,948.7	124,410.1	108,181.7	112,363.0	114,857.0	129,398.4	131,967.0	132,466.6	125,180.8	121,222.0	122,663.2
		2021	94,523.3	99,962.2	121,630.5	119,458.8	125,624.6	132,521.8	138,157.3	136,426.1	131,395.0	129,777.8	123,943.9	126,917.5
		2022	98,301.4	104,598.2	121,359.3	120,653.4	127,885.8	135,834.8	141,473.1	140,655.3	136,619.7	135,280.4 ³⁾	130,292.5 ³⁾	131,269.7 ³⁾
		2023 ³⁾	116,872.8	126,913.9	135,543.9	120,759.1	121,954.5							
해상 운송		2020	1,871.2	1,657.9	1,638.8	1,633.9	2,327.2	1,582.5	1,949.0	2,158.3	2,625.6	2,508.8	2,584.1	2,152.8
		2021	1,467.0	1,216.8	1,851.1	2,178.1	2,218.6	1,565.2	2,115.4	2,217.4	3,042.9	1,638.4	1,745.8	2,182.9
		2022	1,581.4	2,031.3	1,662.5	1,857.4	2,549.8	2,209.1	3,043.2	3,073.0	1,922.1	2,366.0 ³⁾	2,567.0 ³⁾	2,692.0 ³⁾
		2023 ³⁾	2,730.3	2,213.8	2,794.5	2,799.4	2,782.7	3,106.2						
내륙수운 ¹⁾		2020	2,386.1	2,202.3	3,064.0	4,304.4	13,028.3	14,750.6	16,304.0	15,348.5	14,505.8	12,800.3	7,624.8	2,706.3

	2021	2,003.8	1,825.7	2,685.8	3,064.2	11,558.8	16,381.4	16,327.8	16,125.3	15,799.8	13,645.9	8,218.6	2,859.3
	2022	2,005.4	1,993.4	2,172.5	3,720.0	12,192.6	16,193.7	17,738.2	18,538.0	16,916.6	14,457.5 ³⁾	8,459.0 ³⁾	2,016.7 ³⁾
	2023³⁾	1,661.9	1,344.4	2,071.5	4,068.9	12,180.8							
항공 ²⁾	2020	80.7	69.9	101.5	80.8	89.5	90.9	92.0	95.3	104.0	113.9	126.9	129.1
	2021	100.3	100.5	120.8	120.2	121.3	118.4	122.3	122.8	128.1	133.7	140.0	148.5
	2022	115.3	97.8	33.8	30.1	31.6	34.9	38.1	43.1	42.4	43.1 ³⁾	45.0 ³⁾	51.1 ³⁾
	2023³⁾	31.9	34.2	37.6	35.8	35.3							
파이프라인 ⁴⁾	2020	101,088.9	95,177.0	96,440.0	88,926.4	78,023.6	73,815.7	78,171.7	81,667.1	82,713.8	88,193.5	93,117.3	104,102.0
	2021	105,018.7	95,967.4	100,879.2	91,355.4	92,043.7	88,822.9	88,785.4	89,502.3	90,446.6	95,553.7	96,726.4	106,250.8
	2022	104,298.4	92,025.3	102,953.5	86,600.0	86,532.6	82,351.9	81,088.8	80,869.4	78,253.4	85,383.5 ³⁾	90,951.5 ³⁾	10,1498.4 ³⁾
	2023³⁾	102,164.0	90,293.9	93,283.6	85,548.2	82,117.7							

- 1) 내륙수운~해상 연결 운송과 같은 선박을 활용한 복합운송 포함
- 2) 러시아 연방 항공운송청(Federal Air Transport Agency) 자료 기반 수치
- 3)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및 헤르손 주에 대한 통계 수치 제외
- 4)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원자료에서 세부 항목에 대한 통계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함에 따라, 총합계 수치만 공개함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참고자료

a) [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